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 계획’ 국제 포럼

#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해법 모색해야

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시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에디터 김소진 사진 이충규

지난 9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국제 포럼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미래학자이며, 물리학자,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석해 첨단기술의 발전, 정보화 시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시대, 대도시 공동화, 나노 테크놀로지의 파급, 텔레포테이션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도시 및 친환경 미래 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사)유엔미래포럼,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김창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축사로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치사를 했다.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미래 도시개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과 미래의 도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미래 개인들의 생활 패턴은 물론이고 도시 및 주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정보화와 나노 테크놀로지, 텔레포테이션 등 발전하는 첨단기술이 도시 개발 및 주택 건설에 융합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그 이상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발제자로는 25년 전 세계 최초로 나노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나노 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릭 드렉슬러(Eric Drexler) 박사와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의 창립 위원인 프랭크 카탄자로(Frank Catanzaro) 교수, 세계미래학회 이사인 데니스 모건(Dennis Morgan) 교수가 나섰다. 이어서 세계적인 첨단공학 분야의 벤처회사 Ennex 社의 회장 마셜 번즈(Marshall Burns) 박사와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가 발표를 했다.

##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겪게 될 듯

‘나노 공학 혁명과 미래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에릭 드렉슬러 박사는 “나노 기술로 인해 미래는 제조 비용과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고, 경제 활동이 빠르게 진행돼 사회가 초고속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래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나노바이오 공학과 정보노뇌 공학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일거리는 없어지고 인구의 이동은 빨라지고 물건들이 손쉽게 조립되고 이동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의 아크투루스 리서치 & 디자인그룹(The Arcturus Research & Design Group)의 공동 창시자 겸 고위 파트너이자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창립 위원인 프랭크 카탄자로 교수는 ‘미래 도시계획 : 새로운 공동체와 도시를 창조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카탄자로 교수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미래의 신도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미래예측 연구 기법을 이용할 것”이라며 “미래의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안드레스 듀어니(Andres Duany)의 연구에서 유래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의 도시는 창조적인 신기술들이 생겨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 필요

마지막으로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인구의 증감과 주택의 수요 공급을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면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박대표는 50년 전부터 계속된 도심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 문제는 10년 후에 닥칠 것이라고 한다. 인구 이동과 인구 분포, 도시와 농촌의 변화, 도심 공동화, 재택근무 인구 증가 등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택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외국의 도심 공동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도 이미 도심 공동화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현재 인구는 2억 8142만 명인데, 2050년에는 4억 3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북동부의 67개 대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로 뉴욕 주의 로체스터와 볼티모어, 오클라호마 주 잭슨 카운티,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도심 인구가 계속 급감하면서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각하다. 영국의 뉴캐슬과 맨체스터,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시와 던디시 등 대도시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박대표는 한국도 출산율이 저조하고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도심 공동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국의 출산율은 2.09, 프랑스 1.98, 독일 1.76, 영국 1.64 인데, 한국은 1.16으로 지구촌 200여 개국 중 최하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녀는 한국의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다고 전한다. ☺